

# World Toilet



글 | 홍하영 | 사진 | 임민석 | 디자인 | 조지

중국대륙 시리즈 제9편

## 우다커우(五道區)의 화장실



1. 북경대도서관 자전거보관소

인구 천만, 북경시의 북쪽에 있는 우다커우 거리.

이곳은 중국 최고의 명문 베이징대, 칭화대, 런민대(人民大)가 자리잡은 대학가이다.

그러나 요즘 이 거리는 한국학생들로 북적이고 있다.

여기저기서 들리는 것은 중국어라기보다는 한국말이 대부분이다.

이른바 중국바람을 타고 유학온 학생들 천지이기 때문이다.

이 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학생은 줄잡아 1만명.

중국 전체에서 약 2만명의 한국 유학생들이 중국을 알기 위해 공부하고 있다.

베이징 대학은 칭화대와 더불어 중국 최고의 명문으로 생긴지가 벌써 1백년이 넘었고, 세계의 명문 대학 순위 8위에 올라있을 정도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요즘은 중국 최고의 대학으로 칭화대가 손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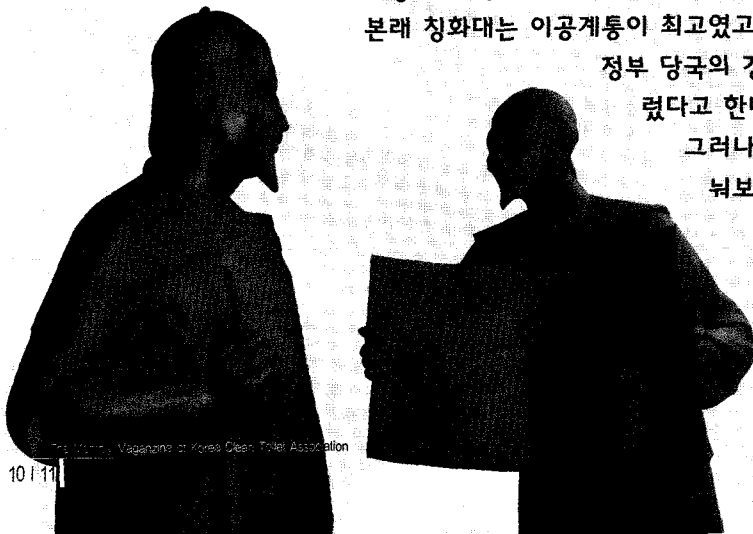
지난 8년 연속 중국 최고대학은 칭화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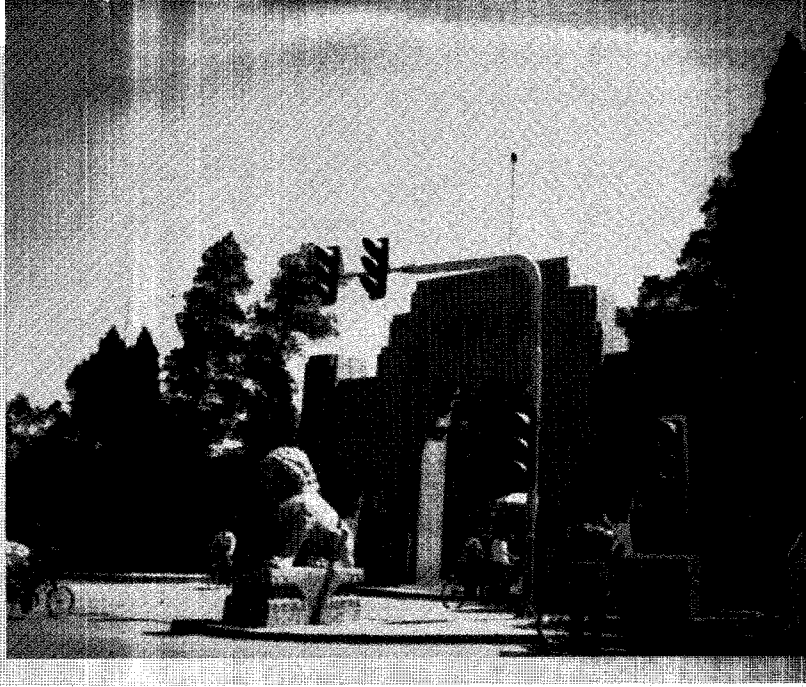
근래 중국의 명문대학 순위를 꼽으면 1위 칭화대, 2위 베이징대, 3위는 상하이 푸단대(復旦大), 그리고 이어 상하이 교통대, 톈진 남개대, 상하이 과기대, 런민대의 순이다. 칭화대가 근래에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중국의 최고 지도부에 칭화대 출신이 많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 인물이 후진타오 신임 주석이다.

본래 칭화대는 이공계통이 최고였고, 베이징대는 문과계통이 최고였으나 중국 정부 당국의 강력한 지원으로 문과계통도 베이징대를 늘렸다고 한다.

그러나 베이징대 학생들이나 교수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그들은 아직도 베이징대가 중국 최고의 대학이라는 데 대해서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는다. 공교롭게도 베이징대와 칭화대는 길거리 하나 사이를 두고 나란히 있어 서로의 자존심 경쟁을 하고 있다.





## 베이징대학 교정에서

베이징대에 들어서 본다.

정문에서 몇발짝 들어서기가 무섭게 베이징 대학 도서관의 건물이 보인다.

지상 4층의 웅장한 콘크리트 건물인데, 지붕은 기와를 씌었다.

그 베이징 대학 도서관 건물의 이마에 <北京大 圖書館>이라는 현판이 걸려있다.

버선발로 날아갈 듯한 날렵한 글씨인데, 획의 빠침이 누구도 당하지 못할 재주와 피로 가득차 있다.

바로 마오쩌둥(모택동)의 글씨이다.

마오쩌둥은 베이징대 도서관과는 깊은 인연이 있다.

그의 나이 25세때인 1918년 바로 그 도서관의 사서로 근무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마오쩌둥은 왕성한 독서가로 알려져있는데 일설에는 평생동안 약 2만권의 책을 읽었다고 한다.

그의 방대한 독서량 중 상당수가 바로 베이징대 도서관에 사서로 근무하면서 읽은 것들이었다.

베이징대학 도서관 현판 외에 <北京大>라는 교명과 중국 최대의 신문인 <인민일보>의 제자(題字)도 또한 마오쩌둥의 글씨이다.

베이징대학은 학생수 1만명에 교직원인 1만명인 큰 대학이다.

이 대학에 들어오려면 보통 3천대 1정도의 경쟁을 뚫어야한다고 하므로 그야말로 수재 중의 수재가 아니면 들어 오기가 어렵다.

실제로 베이징대학의 명문학과인 법학과, 국제정치학과, 국제외교학과, 국제경영학과의 재학생들은 중국의 31개 성에서 선발되는데 각성에서 3등안에 들어야 베이징대 입학이 가능하다고 한다.

중국은 1개성(城)에 보통 7, 8천만명의 인구가 있으므로 거기에서 3등안에 들기란 여간한 수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할 것이다.



- 1
- 2
- 3
- 4
- 5

1. 미용실
2. 한국변신가게
3. 한국식당반찬을 파는 부식점
4. 준항이 불고기집
5. 한국 물건을 파는 슈퍼마켓  
- 중국의 각곳에는 이렇게 한국간판을 단 한국 음식점이 많다.

베이징대 입학식의 풍경은 감격적이다.

그 어려운 관문을 뚫고 들어왔다는데 대한 자부심도 있기도 하지만, 중국의 장래가 바로 너희들 어깨에 걸려있다는 총장의 당부에 신입생들은 어깨를 들썩이며 중국을 위해 뼈를 바치겠다고 우는 것이다.

실제로 베이징대 학생들은 중국의 역사를 바꾸기도 했다.

1919년에 일어난 5.4운동같은 것이 대표적인 사건이다.

5.4운동은 한국의 3.1운동의 영향을 받아 베이징대 학생을 중심으로 일어난 혁명이다.

그때 학생들은 반제국주의와 반봉건주의를 외치며 시가를 행진했고, 오늘날 중화인민공화국을 반석에 올려놓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그런 연유로 베이징대학은 개교기념일을 5월4일로 정하게 된다.

오늘날 베이징 대학에 재학 중인 한국학생은 졸업아 5백명선.

외국인 학생 중에서는 제일 숫자가 많다.

이어 일본, 미국, 몽골, 러시아, 독일, 프랑스, 영국과 동남아 화교들이 대부분이고 심지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온 학생도 있다.

잔디가 깔려있는 캠퍼스, 그 안에 미명호라는 호수가 있고, 곳곳에 20여개의 식당들이 늘어서있는 베이징대학의 캠퍼스.

점심시간이어서 식당들에서는 지지고 볶는 연기가 풍풍 쏟아져 나온다.

식당들은 학생전용의 싸구려 식당이 아니다.

제대로 격식을 갖춘 레스토랑이다.

식당의 메뉴판 중에는 한국어 메뉴판이 따로 있고, 김치도 팔고있다.

그만큼 한국 학생이 많기 때문이다.

## 우다커우 거리의 한국 식당들

베이징 대학 교정을 나와 우다커우 거리를 걷는다.

베이징 대학 앞의 우다커우 거리에는 한집 건너 한국식당들이 줄을 서있다.

삼겹살집부터 라면집, 떡볶이집에 이르기까지 모든 한국음식을 팔고있다.

한국미장원도 있고, 한국 헬스클럽, 피시방도 등장했다.

이 거리에 한국학생들의 사설 기숙사가 많기 때문이다.

요즘 한국에서 어학연수를 많이 오는 문화어언대학도 바로 이 거리에 있다.

문화어언대학의 한국인 재학생만도 2천명이 넘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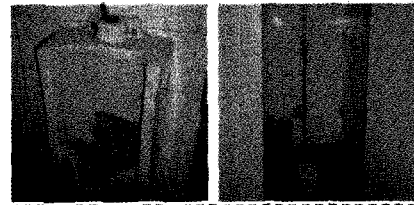
그들의 꿈은 바로 베이징대나 칭화대를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거의 95%정도의 학생이 입학에 실패한다.





1. 2. 식당내 화장실  
3. 용강루 외관



명문대학은 중국에서도 들어가기 힘들다.

또 입학을 한다해도 졸업은 더 힘들다.

과락과목이 3개 이상되면 졸업을 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수업을 저녁 8시까지 하고, 거기에 리포트의 양도 엄청나다.

새벽1시까지 공부를 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한국의 학부모들은 무조건 자식들을 중국의 대학에 보내고 싶어한다.

현재 한국의 부모들이 가장 많이 유학을 내보내는 국가가 중국이다.

그러나 학생의 실력이나 자질을 생각하지 않고 일단 보내놓고 보는 유학은 곤란하다.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다니고, 큰소리로 떠들면서 다니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한국에서 어학 연수차 온 학생들이다. 그런 학생들을 보면 걱정이 앞선다.

나도 늙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국 학생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을 둘러보았다.

### 플라자빌딩.

4층의 현대식 빌딩은 한국식당에서부터 가라오케, 피시방, 헬스클럽, 수영장 등이 주로 한국학생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다.

피시방을 가보니 그야말로 전세계에서 온 학생들로 만원이다. 그러나 역시 한국학생들이 대다수.

피시방의 요금은 10분에 1위안(150원).

한시간이면 한국돈 900원정도이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다.

식당의 밥값도 김치찌개, 된장찌개가 3천원 정도로 우리보다는 조금 싼편이지만 대체로 우리 물가와 비슷하다.

피시방도, 식당도 주인들은 대개 조선족이거나 중국인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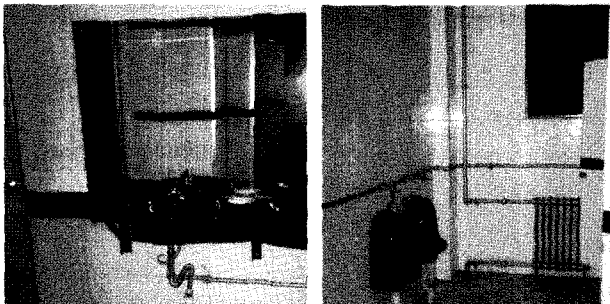
건물은 깨끗하게 잘 지어 놓았는데 한국학생들이 가장 많이 찾는다는 이 빌딩의 화장실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화장실에 가보았다.

생각보다 깨끗하다.

시설도 현대적이고, 관리도 매우 잘하고 있다.

손님의 대부분이 한국인이어서 거기에 수준을 맞춰주고 있다.

중국의 화장실 근대화를 우리 학생들이 앞장서서 해주고 있다고나 할까.



1. 2. 플라자빌딩내의 화장실  
-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다.